CSLV

CASA LIVING
까사리빙

SPECIAL
식물 일상
Green Life

ARCHITECTURE 자연이 다름은 일상의 감도
FAIR 파리라는 거대한 아카이빙
STAY 미무름을 설계한 장인

THE DOCENT FOR DESIGN LIFE

2026 MARCH www.casa.co.kr

야외로 나간 거실, 아웃도어 리빙

집의 외연을 결정짓는 최전선으로 격상한 아웃도어 가구 전용 섹션인 홀 3에 전시된 50여 개 브랜드의 신제품은 고급 주거 및 요트 산업의 니즈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었다. 생동하는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것은 물론 조각적인 볼륨감과 구조미를 표현하고, 친환경 소재로 지속 가능성도 충족시켰다. 벨기에 디자인과 제조의 정체성을 내건 분더(Wünder)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관계성에 주목했다. 10명 내외를 수용하는 '더 테이블'과 원형 테이블 '더 서클', 더욱 친밀한 소통을 위해 설계한 2인용 제품 '더 듀오'까지, 심플한 라인에 산뜻한 컬러가 위트 있다. 스웨덴의 가든 글로리(Garden Glory)는 외부 환경을 실내 공간처럼 큐레이션하겠다는 사명을 내세웠다. 발코니와 정원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파라솔 '더 아이코닉 셰이드(The Iconic Shade)' 컬렉션은 따사로운 햇빛 아래 나른한 오후의 모든 순간을 패셔너블하게 채운다. 이탈리아의 감성과 북유럽의 기능성을 절묘하게 융합해온 산업 디자이너 루카 니케토(Luca Nichetto)는 까시나의 실내용 가구인 '토레이(Torei)'를 아웃도어에 최적화해 새롭게 고안했다. 포슬린 스톤웨어 소재를 적용해 내후성과 유연성도 높였다. 애시 그레이부터 모스 그린, 아마란스 레드, 코발트블루에 이르는 색상 스펙트럼은 선명한 예술적 변주를 더한다. 박람회장 내 대형 부스를 마련한 간디아 블라스코 에디션(Gandia Blasco Edition)은 건축가 겐고 구마의 '호스(HOS)' 컬렉션으로 자연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 "비나 안개와 같은 자연 현상을 기하학적 패턴으로 시각화하는 것은 나의 건축적 숙제이자 관심사 중 하나로, 모호하고 불분명한 현상을 특정 패턴으로 실체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는 재활용 폴리에스테르(PET) 섬유와 목재 프레임을 결합해 가구를 넘어선 작은 건축을 완성했다.

©Wünder 1

©Wünder 2

©Garden Glory 3

©Cassina 4

©GANDÍA BLASCO Edition 5

1 하나의 강판을 다듬어 균형 잡힌 형태를 갖춘 분더의 '더 벤치'.
2 친밀한 유대감을 표현한 '더 듀오'.
3 가든 글로리의 '더 아이코닉 셰이드'.
4 루카 니케토와 까시나가 협업한 '토레이' 테이블.
5 겐고 구마와 스페인 가구 브랜드 간디아 블라스코 에디션의 '호스' 컬렉션. 보슬비가 내리는 풍경을 추상적인 패턴으로 직조했다.

©FabBRICK 1

©FabBRICK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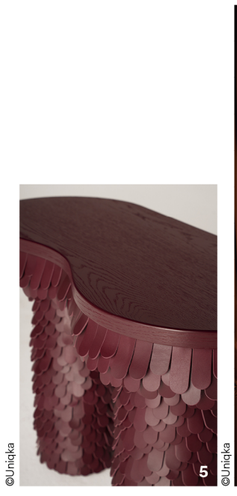
©Mediterranea Design 3

신 장인 정신

메종&오브제의 수많은 부스 사이에서 집요한 탐구 정신으로 눈길을 사로잡은 네 곳의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이탈리아의 메디테라니아 디자인(Mediterranea Design)은 생분해성 소재에 3D 프린팅 기반의 적층 제조 공법을 활용, 기술을 제어가 아닌 물질과의 창의적인 대화를 위한 해석의 도구로 사용한다. 소재 스스로 형태를 드러내는 유기적 구조의 '마테리에(Materiae)' 컬렉션은 네 가지 컬러로 구성되며, 자연을 상징한다. 팹브릭(FabBRICK)을 론칭한 프랑스 건축가 클라리스 메를레(Clarisse Merlet)는 패션 산업의 고질적 문제인 의류 폐기물에 착안, 이를 분쇄 및 압착해 텍스타일 벽돌로 재탄생시켰다. 원재료인 섬유의 색감이 그대로 투영된 제품은 탁월한 흡음 성능과 단열 효과를 지닌 건축 마감재이자 가구로 스펙트럼을 넓히며, 지금까지 LVMH, 로레알, 리바이스, 데카트론 등 유수의 브랜드와 협업했다. 이스탄불에서 온 유니카(Uniqka)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브랜드 정체성을 응축한 시그너처 컬러, '보르고나(Borgona)'를 테마로 한 모노크롬 설치전을 준비했다. 빨강과 보라색의 경계에서 숙성된 와인의 풍부함과 벨벳의 부드러움, 대지의 고요한 에너지를 머금은 이 매혹적인 색조는 라라 보힌크(Lara Bohinc), 야코프 더 반(Jacob de Baan) 등 저명한 디자이너들의 가구와 만나 자연스레 스며든다. 유니카의 전 제품은 가죽을 삶아 단단한 구조재로 탈바꿈시키는 퀴르 부이(Cuir Bouilli), 핸드 스티칭과 같은 고전적 기법에 컴퓨터 제어 가공인 CNC 밀링, 3D 프린팅처럼 첨단 기술을 융합해 동시대적 장인 정신을 보여준다. 클레망 루줄로(Clément Rougelot)와 케빈 돌치(Kevin Dolci)가 설립한 트레즈 데세르(13Desserts)는 가구와 조명, 오브제를 아우르는 프랑스의 디자인 에디션 브랜드다. 브랜드명은 프로방스 지방의 전통 성탄 제과에서 유래했으며, 13가지의 서로 다른 재료가 조화를 이루듯 디자이너 및 장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독창적인 예술 공동체를 구축해왔다. 산업적 공정과 수공예를 결합해 이들의 디자인은 마치 엄동설한의 한복판에서도 찬란한 지중해 햇살을 마주하는 듯한 놀라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13Desserts 4

1 팹브릭은 LVMH 서큘러리티(LVMH Circularity) 이니셔티브와 함께 400kg의 버려진 섬유로 가구를 제작했다.
2 그러데이션 효과가 독특한 테이블 다리는 인위적 염색이 아닌 자원 순환의 과정이 남긴 아름다운 흔적이다.
3 메디테라니아 디자인의 '마테리에' 컬렉션은 마그마, 네뷸라, 테르메, 테라에 이렇게 자연의 요소를 상징하는 네 가지 컬러로 구성된다.
4 토마 드푸르(Thomas Defour)가 디자인한 '그랑 리보(Grand Ribaud)'. 바다 위 트램펄린에서의 낮잠과 같은 편안함을 선사한다는 콘셉트다.
5 라라 보힌크의 '베트시(Betsy)' 콘솔.
6 시그너처 컬러 '보르고나'로 뒤덮인 이스탄불 브랜드 유니카의 부스.


©Uniqka 5

©Uniqka 6